

환경부의 경제살리기 실천계획

환경부에서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환경부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기로 하고, “경제살리기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자가용 이용 줄이기”, “환경친화식당에 대한 지원 확대” 등 환경을 보전하면서 경제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는 8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특히 환경부 공직자들이 일상생활과 직무수행에서 실천할 과제로써 “음식물 남기지 않기”,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기” 등 15개의 실천사항도 제정하여 지켜 나가기로 하였다.

<편집부>

1. “자가용 이용 줄이기” 실천 확산

우리나라는 석유를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 충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자가용 운행이 많은 실정(승용차의 연평균 주행거리가 22,000km로 외국의 2배 수준)이다.

특히 경제전반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소형보다는 중대형 승용차를 선호하는 국민의식이 만연되어 있어 환경오염과 외화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환경부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월-금요일중 하루를 자가용 이용 안하는 날로 지정, 제출하여 자율 운영하고, 이후 전 공공기관 및 민간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반상회 등을 통해 지역별 카풀결성 유도, 주요 지점에 카풀 표지판 설치, 카풀차량 사고시 보험혜택 부여 협의.검토 등을 통해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Car Pool)의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와함께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걷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되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지하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역에 환승주차장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2. 음식물 남기지 않기 운동 추진

우리나라는 상당량의 양곡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낭비적 식생활 문화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인당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0.35kg(영국.프랑스 0.26kg, 독일 0.27kg)으로 과다한 실정이다.

이러한 과다한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외화낭비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96년도 우리나라 양곡 수입량이 13,337천톤(약 28억불)으로 전체 사용량의 70% 이상 차지할 정도이다.

이에 이를 해결점을 모색하기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우수 실천업소를 환경친화 식당으로 지정, 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수도료 감면 및 시설자금 지원 외에 위생단속 등 행정단속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범국민적인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운동”을 집중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차량, 음식점 등에 대대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스티커 부착을 유도하는 한편 “1주일 식단짜기”, “과다한 음식 안만들기”, “음식재료 구매전 냉장고 확인하기”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지침을 제정. 보급함은 물론 외식자제 분위기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3. 수도물 아껴쓰기 운동 전개

인구증가 산업화, 도시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갈수기 등에는

상습적인 물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1인당 1일 물사용량은 206리터로 선진국(독일 131리터, 프랑스 147리터, 네덜란드 159리터 등)보다 월등히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수도물 아껴쓰기를 생활화 하도록 하기 위해 세탁물 모아 세탁하기 등 물절약 실천지침을 만들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한다. 물사용량이 많은 시설물에는 가능한 한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고 중수도 설치 사업장에는 수도요금을 경감해 줄 계획이다. 또한 절약형 수도꼭지 등 물절약용 수도기기의 설치를 늘려나가고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건축물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폐수배출업소의 물절약 실천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폐수 10% 줄이기 운동의 참여 기업수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4. 1 회용 제품 사용억제 방안 추진

사용상의 편의성 등으로 각종 1회용 제품이 대량 판매사용됨에 따라 자원의 낭비는 물론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회용컵,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량이 연간 45만톤으로 추정되며 발생된 쓰레기는 대부분 매립 처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이해 가능한 한 재생종이봉투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주부들의 장바구니 활용 분위기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목욕탕에서도 1회용품 판매 억제, 개인별 세면도구함 설치 등 면도기, 칫솔 등 1회용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 나가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코팅된 1회용 홍보물을 양산하지 않도록 신문보급소와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5. 재활용품 구매촉진 및 중고생활용품 교환 분위기 확산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중고용품을 수리하여 재사용하기보다 버리고 새로운 제품을 사쓰는 형태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품에 대한 구매 등 이용도 저조하고 이러한 국민의식으로 인해 자원낭비와 쓰레기 과다발생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재활용 제품사용을 늘리기 위해 재활용 제품의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확대(90개 --> 114개)하고 정부수주공사에는 자재중 일정을 이상을 재활용제품으로 의무사용토록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또한 중고품의 상호교환을 손쉽게 하기 위해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알뜰시장”을 정기적으로 열고 향후 이를 대기업, 정부투자기관, 각종 민간단체 등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중고품의 수리·교환·판매를 담당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설치·운영중인 “재활용품유통센터”도 대폭 확대된다(155 --> 230개소).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는 체육복, 교과서, 참고서 등 학용품의 선후배간 전수운동을 집중 전개할 계획이다.

6. 전직원 1통장 갖기 운동 전개

근래들어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저축에 대한 관심 및 열의가 식어지고 과소비 풍조에 편승하여 과다 지출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건전소비자세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정부기관부터 솔선하여 저축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에 환경부, 환경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 전직원이 1개 이상의 예금 또는 적금통장에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우수저축직원에 대한 포상 실시 방안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7. 환경분야 규제개혁 추진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실효성 없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기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준

정책 - II

수하기가 어려운 규제 및 기준을 발굴·재조정하고 오폐수 병합처리 승인제도 폐지 등 형식적이거나 실효성 없는 규제는 폐지하고 규제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허가·승인 등 환경관련 사무의 기준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항유 사용변경 및 고체연료 사용승인의 구체적 법정보건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폐수처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등 각종 산업체의 진입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등록·허가기준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기술인력 구비의무 폐지 등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신설규제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기업체의 자율적 환경관리여건 조성과 환경친화기업 지정 및 환경안전 자율진단제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8. 환경예산 절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계의 근검절약에 공공부문이 솔선하기 위해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고 사업비도 시급성이 덜한 예산을 집행할 유보할 계획이다.

금년중 에너지 절약, 물자절약, 환경관련 행사 간소화, 여비절감 등을 적극 추진하여 6,710억원을 절감토록 하고, 청사신축 예산 등 392억원은 집행 유보할 방침이다.

〈97년도 환경부 예산 절감계획〉

(단위 : 백만원)

총절감액	정부예산 절감액	출연기관 자체 절감액
6,710	3,986	2,724
물건비(200목) : 2,323 수탁사업 절감액 : 2,724		
출연금 : 1,466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 197		

〈97년도 환경부 예산집행유보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97예산	집행유보액	
계	2,928	392	
종합환경연구단지 조성	221	111	청사신축
재활용산업육성	450	35	세부사업계획 미확정
G-7 환경공학기술개발	200	20	세부사업계획 미확정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150	5	장기계속사업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877	88	장기계속사업
하수처리시설 지원	1,030	133	장기계속사업

공직자 실천사항

- 하지말아야 할 사항

(1) 책임전가, 무사안일, 어려운 일 회피, (2) 남의 험담하기, (3) 빈방에 불켜놓기, (4) 샤워기 등 수도물 틀어놓고 뚜껑닫기, (5) 퇴폐유희업소 이용, (6) 폭탄주 돌리기, (7) 운전중 끼어들기

- 실천하여야 할 사항

(1)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많이 걷기, (2) 교통신호 지키기, (3) 사무용품, 공공용품 절약하기, (4) 저축하기, (5) 물건 오래쓰기, (6) 재활용 제품 많이 이용하기, (7) 음식물 남기지 않기, (8) 사무개선, 업무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

<명칭변경>

변경 전

인천주물지방공업단지관리공단
(仁川鑛物地方工業團地管理公團)

변경 후

인천주물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仁川鑛物地方産業團地管理公團)